

# 호명서사와 정체성의 문제:

염상섭의 「남창서」에서 김사량의 「빛 속으로」

김 윤 주\*

## I. 서론

1930년대를 거치며 일제는 ‘창씨개명’, ‘국어(일본어) 상용’ 등 다양한 동화정책을 실시했다. 일제는 1938년 3월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조선어를 선택과목화 했으며 4월부터는 조선어 교육 및 사용을 금지시켰다.<sup>1)</sup> 조선어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없는 시기, 일본어로 쓰인 김사량의 작품은 친일문학이나 절필을 통한 저항 어느 쪽에도 넣을 수 없는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김사량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체제의 논리를 완벽히 내면화한 친일파도 체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항일투사도 아닌, 피식민 조선인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이다. 오히려 이들의 내면은 동화예의 요구와 이화예의 욕망 간의 긴장으로 점철되어 있다. 식민화된 일상 속에서 개인은 부정적 호명으로 인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김사량의 「빛 속으로光の中に」(『文藝首都』, 1939. 10)는 일본 사회를 살아가는 조선 유학생의 눈을 통해 당시 조선인들이 느꼈을 차별과 내적 갈등을 복원하고 있다. 주인공의 주된 고민은 ‘호명’에 대한 것이다. 조선인은

---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부 재학

1) 홍일표,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창씨개명’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62면.

열등하므로 일본인을 따라야한다는 국가 차원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일본 사회의 조선인들은 ‘조센징’이라는 부정적 명칭으로 호명되거나 한 사람으로 호명될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같은 차별의 상황에서 주인공은 실존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똑같은 고통을 일본인-조선인 혼혈아이 역시 겪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적대감으로 시작한 주인공과 혼혈아이의 관계는 결말에 이르러 동질감으로 전화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호명의 가능성이 확인된다.

부정적 호명으로 고민하는 개인의 문제를 혼혈의 실존적 조건과 연결시킨 것은 염상섭의 1920년대 「남충서(南忠緒)」(『동광』, 1927. 1~2)에서도 발견된다. 이 글은 「남충서」와 「빛 속으로」가 식민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호명되는지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호명서사’라는 범주로 묶고자 한다. 그리고 두 서사에서 등장인물이 어떻게 호명되고 부정적 호명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분석함으로써, 부정적 호명이나 호명의 박탈이 개인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밝힐 것이다. 나아가 호명에 의해 정체성을 제한받음에도 개인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생산된 주체’로서 호명기제에 종속되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호명으로부터 탈주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 II. 기존 연구 검토

일제 말기 조선어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자 대개 조선의 문인들은 대일협력으로 나아가거나, 절필을 통해 일제의 방침에 저항했다. 하지만 조선 문인들의 일반적인 대응과는 달리, 김사량은 저항과 협력이라는 이분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이한 행보를 보인다. 김사량은 「조선문학 풍월론」에서 “조선 작가는 자신의 독자층을 위해서 조선어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며 조선어 창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로 장본인에게 대단히 적극적인 동기가 있다면 내지어로 글을 써도 된다고 주장한다. 김사량에게 적극적인 동기란 “조선의 문화나 생활, 인간을 보다 넓은 내지의 독자층에게 호소하

려는 동기. 또한 겸손한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는 조선문화를 동양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중개자가 되어 수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뚜렷한 동기로 김사량은 동경유학시절 일본어 작품을 창작하여 단편 「빛 속으로」<sup>2)</sup>가 이쿠다가와 상 차석에 오른다.

민족을 위한 길로 제국의 언어인 일본어를 택했다는 사실 때문에 김사량의 평가는 ‘친일작가’와 ‘민족주의자’라는 양 극단으로 나뉘었다.<sup>3)</sup> 1955년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에 언급되면서, 김사량은 일본어로 작품을 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친일 행위를 한 작가로 분류되었다.<sup>4)</sup> 이에 안우식은 『김사량평전』에서 김사량의 저항적 면모를 부각하며 김사량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사량의 작품에서 저항적 민족주의를 읽는 것은 안우식의 『김사량평전』에서 시작하여 김재용(2004) 등의 연구로 이어진다.

김사량을 ‘민족주의자’로 평가하는 연구는 일본어 글쓰기라는 이유만으로 친일로 분류했던 기존 관행을 비판함으로써 작가의 구체적인 의도를 살필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김사량이 일본 제국에 대한 저항이라는 일관된 목적으로 글을 써 왔다고 전제함으로써 그의 다층적 면모를 하나의 모습으로 축소시킨다. 안우식의 『김사량평전』은 동경유학시절 ‘민족주의 작가의 탄생’기로 요약하며, 김사량의 일본어 글쓰기를 일본 제국을 탈출해서 연안으로 가기 위한 ‘위장’으로 본다. 김재용은 논문 「김사량·망명 혹은 우회적 글쓰기의 돌파구」에서 김사량의 일본어 글쓰기가 당시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비협력을 표현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궁극적으로는 조선어 창작을 목표로했음을 강조한다. 두 글은 「해군행」 르포와 같은 김사량의 대일 협력 글쓰기나 내선일체 동조 발언을 언급하지 않거나 소략해서 제시하며, 그의 일본어 글쓰기를 조선어 글쓰기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양분된 연구의 흐름은 김사량의 정체성을 ‘친일작가’와 ‘민족주의

2) 김사량(김재용, 곽형덕 편), 「빛 속으로」, 『김사량 작품과 연구』, 역락, 2008.

3) 김석희, 「김사량 평가사」, 『일어일문학연구』 57, 한국일어일문학회, 2006 참조.

4) 위의 글, 199면.

자'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한계를 보인다. 김사량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그의 일본어 글쓰기에서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협력하는 분열된 주체를 발견한다. 윤대석(2006)에 따르면 식민지 문학은 식민지인과 피식민자의 관계를 통해 생산되는데, 김사량의 경우 일본적인 것을 일정부분 승인하는 동화의 경향과 그것이 조선적인 것의 존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화의 경향을 동시에 보인다. 즉, 김사량의 문학은 일본어를 사용하면서도 조선적인 감정을 부여하기 위해 그것을 뒤늦어서 사용하는 전유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p>5)</sup> 윤대석의 논의를 토대로 김석희(2010)는 「빛 속으로」에서 지식인의 윤리의식을 읽어낸다. 김석희는 「빛 속으로」의 주인공이 느끼는 내적 갈등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를 개인의 죄로 판단하는 '형이상학적 죄책감'에 해당한다고 본다. 즉, 궁극적인 원인이 공동체 외부에 있음에도 결국 피해자가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김석희는 주인공 마나미는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 밝힐 것인가'하는 문제로 고민한다고 지적함으로써, 주인공이 겪는 내적갈등은 정체성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 윤리의 문제라고 주장한다.<sup>6)</sup>

김석희가 분리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와 '내가 누구라고 밝힐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호명'이라는 하나의 문제로 묶일 수 있다. 전자가 정체성, 후자가 호명에 대한 물음이라면, 결국 개인은 사회에서 스스로가 어떻게 호명되는지를 의식하며 정체성을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김석희의 지적대로 단일한 정체성을 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주인공의 고민은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는다. 그러나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단일하고 본질적인 '나'로 수렴된다고 해서 해소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본질을 전제하는 순간 '나'는 또다른 호명의 이데올로기에 갇히고 만다. 「빛 속으로」의 결말은 타자의 호명을 통해 열등감을 벗고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주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하루오의 호명에 대한 '나'의 반응은 '당황스러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새로운 주체되기의 가능성으로 검

5)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94-195면.

6) 김석희, 「식민지인의 윤리적 분열과 내러티브」, 『일본문화연구』 35,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24면.

토하고자 한다.

### III. 호명서사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sup>7)</sup>

#### 1. 소설 분석에서 ‘인물’의 문제

문학텍스트에 드러나는 호명 행위를 통해 등장인물의 내적 갈등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소설의 ‘인물’이 실제 인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일견 당연한 듯한 이 가정은 소설이 작가가 창작한 허구적 텍스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선부른 판단일 수 있다. 즉, 텍스트에서 형상화된 인물과 실제 인간이 일치한다는 믿음은 텍스트와 현실을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오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문학 작품의 분석에 앞서 ‘인물’이 어떻게 정의되고 실제 인간과 어떤 연관을 맺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모어 채트먼(Seymour Chatman)은 『이야기와 담론』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사물적 요소 중 하나인 ‘인물’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인물을 플롯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관점이 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부터 형식주의와 구조주의로 이어진다. 『시학』에서 인물은 행위자(agent)에 가깝다. 행위자는 비극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이지만, 여기에 다른 특성들이 첨가되어 성격이 부여된 인물(character)은 비본질적이다. 덧붙여지는 특성 또한 한 인물을 고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수행하는 행위만으로도 파악될 수 있는 기능적인 것이다.

형식주의자와 구조주의자는 인물이란 플롯의 산물이고, 인물의 지위는 ‘기능적’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들은 인물이란 인격체라기보다는 차라리 참여자 또는 행위자이기에 인물을 실제 존재로 생각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한다.<sup>8)</sup> 그러나 토도로프와 롤랑 바르트에 이르러, ‘인물

7) 주체의 호명을 문제 삼는 연구사적 흐름은 김정숙, 『한국현대소설과 주체의 호명』, 도서출판 역락, 2006의 1, 2장을 참고하였다.

이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라는 기존의 견해는 점차 수정된다. 토도로프는 범주·구성 중심적인 비심리적인 서사물과 인물 중심적인 심리적 서사물을 구별하고, 후자에서 인물의 행위는 인물 특징에 대한 '표현'이거나 '징후'가 된다고 인정한다. 롤랑 바르트는 인물로부터 심리적 실체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를 비판하지만 이후 인물과 배경이 행위에 종속되어 있다는 주장을 철회한다. 인물이 플롯의 부차적 요소였다가 점차 그 자체의 중요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채트먼은 등장인물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분석될 수 있는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독자는 한 인간을 대하듯이 허구적 인물에도 '백베드 부인은 좋은 어머니였는가?'<sup>9)</sup>와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플롯처럼 인물 역시 정당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물을 '열린 구성체'로 볼 것을 제안하는 채트먼의 논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춘 텍스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제 인물은 고유한 가치체계를 지닌 구성체<sup>10)</sup>로서 그의 행동이나 관심이 그의 성격, 궁극적으로는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즉, 작품 속에서 인물은 개별 존재이며 나아가 주체<sup>11)</sup>일 수 있다. 그렇다면 문학텍스트에서 인물의 분석은 주체로서 인

8) 시모어 채트먼(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140면.

9) 위의 책, 147면.

10) 김태환, 「이야기의 구조: 주체, 욕망, 가치」, 『푸른 장미를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2001, 87-111면을 참조하였다.

김태환은 서사를 인과체계와 가치체계라는 두 축으로 분석한다. 플롯을 이루는 사건들의 결과는 등장인물의 관심에 따라 의미를 부여받고 서로 다른 두 사건은 인과관계로 연결된다. 등장인물의 서로 다른 관심들은 하나의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19세기 말 모더니즘 소설에 이르러 등장인물의 가치체계는 더 이상 안정된 구조를 보이지 않고, 체계화될 수 없는 이질적 관심들의 집합체(프레데리크 모로)나 가치 내용 없는 공허한 욕망의 주체(카프카), 혹은 기존 가치체계로 파악되지 않으나 새로운 가치체계를 잉태하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프루스트)로 향상화된다.

11) 이 글은 개인과 주체를 구별하는 페터 지마의 관점을 따른다.

개인에 특정한 기호를 발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즉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주체로 인정받게 된다. 페터 지마(허창운, 김태환 역), 『이데올로기와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6, 291면.

물이 발화하는 양상, 타인과의 관계맺음, 그리고 사회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수립하려는 노력에 주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호명’이 이러한 세 가지 분석대상을 엮어주는 핵심이라 보고, 구체적인 작품에 드러나는 호명행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2. 알튀세르의 호명 이론

호명은 타자가 개인을 부르고 호명된 당사자가 응답하면서 완성된다. 즉, 호명은 ‘나’와 타자로 구성된 사회에서 개인이 의미를 부여받고 ‘주체’가 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개인이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주체화되며 그때에 주체는 이데올로기 아래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를 밝히는 일은 주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할 것이다.<sup>12)</sup> 일찍이 이데올로기와 주체의 호명의 관계를 문제 삼은 이는 루이 알튀세르(Louis Pierre Althusser)이다.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서 인간은 본래부터 주체라는 믿음을 비판하며 “이데올로기는 개인을 주체로 호명한다”는 테제를 제시한다. 그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인간과 사회집단의 정신을 지배하는 사고들과 표상들의 체계이며, ‘호명’을 통해 개인들을 주체로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작용한다.<sup>13)</sup> 이데올로기 안에서 인간은 비로소 존재하고 욕망하고 발화하며, 의식의 주체로서 이데올로기적 장치에 기입된 관습들에 맞춰 행동한다.

미셸 페셰(Michel Pecheux)는, 주체는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의 작용은 호명이라는 언술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알튀세르의 주요 테제들을 술화 비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그에 따르면 “술화로서의 이데올로기는 주체를 의미심장한 주체로, 즉 자기 자신, 자신의 생각, 행동, 말의 원인으로 만들어주는 명백한 증거들을 제조해 낸다.”<sup>14)</sup> 이데올로

12) 김정숙, 앞의 책, 17면.

13) 루이 알튀세르(김동수 역),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앵에서의 주장』, 숲, 1993, 103-118면.

14) 페터 지마, 앞의 책, 291면 재인용.

기 내에서 개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형식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결정짓는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페세는 ‘술화구성체’라 부른다.

알튀세르와 페세의 논의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은 다음과 같다. 주체의 언술행위는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며, 특히 호명행위를 통해 개인은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주체로 형성된다. 즉, 페터 지마의 말을 빌리자면, “알튀세르의 호명 이론은 개인이 자신을 지배하는 술화(언어구조) 속에 무의식적으로 동화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sup>15)</sup> 이러한 통찰을 일제 말기 식민지 조선인이 처한 상황으로 옮겨보면, 피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주체들은 일본 제국이 강요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형성되고 호명되며 그에 걸맞는 관습들을 학습해야 개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개인들은 이데올로기의 지침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이는 매순간 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일제가 의도한 체제로의 ‘동화’는 이러한 무의식적 내면화 과정으로서, 제도적 장치로는 국어사용(언어 사용의 제약), 창씨개명(호명 방식의 제약)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3. 알튀세르의 호명 이론 비판

하지만 알튀세르와 페세의 호명 이론은 문학작품에서 드러나는 등장인물들의 구체적 호명행위를 분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들 이론은 주체가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나머지 주체의 어떠한 능동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보인다.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해 개인이 주체가 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은 4가지 층위로 구분한다.

- ① ‘개인들’의 주체로의 호명
- ② 그들의 ‘주체’에의 종속

15) 위의 책, 289-290면.

- ③ 주체들 간의 상호적인 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주체의 인지
- ④ 절대적 보증<sup>16)</sup>

여기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부분은 세 번째 층위이다. 알튀세르의 전체 논의를 토대로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하나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통일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들로 ‘절대주체(대문자 주체 Sujet)’는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개인들(소문자 주체들 sujets)을 주체로 호명한다.

그리고 그 주체들은 주체들 간 호명행위를 통해 이를 강화한다.

최종적으로 주체들은 호명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인지한다. 즉, 정체성을 형성한다.

한편, 페세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술화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술화 구성체들이 형성하는, 복합적이지만 하나의 지배적인 특징을 갖는 총체를 초술화라고 명명하겠다”<sup>17)</sup>고 밝힌다. 즉, 개별 주체들에 대응하는 다양한 술화들이 ‘초술화’라는 하나의 지배적 술화 유형에 종속되는 것이다. 이같은 알튀세르와 페세의 입장에 대해, 페터 지마(Peter V. Zima)는 “도대체 어떤 술화 구성체가 지배적인 것인지를 알아낼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한다. 초술화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말 그대로 가정일 뿐, 사회주의적이고 급진적인 성향을 보이는 다양한 술화들까지 부르주아적이라고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페터 지마의 두 번째 비판지점은 이들 이론이 주체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주체없는 ‘결정론’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페터 지마에 따르면, 페세는 결정론을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가능한 상황을 설정한다. 지배적인 술화 구성체를 맹종하는 ‘착한 주체’와 초술화의 틀이 제시하는 주장들을 뒤집어 놓음으로써 동화의 매커니즘에 빠져나가려 하지만 결국 술화 구성체의 반대상과 동화되고 마는 ‘악한 주체.’ 마지막으로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통해 지배적 이데올로기로부터 ‘탈동일시를 수행하는 주체.’ 하

16) 알튀세르, 앞의 글, 125-126면.

17) 페터 지마, 앞의 책, 293면.

지만 페터 지미는 페세의 세 번째 대안 역시 새로운 형태의 동일시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결정론을 피하기 위한 그의 전략이 지극히 추상적이라고 비판한다.

알튀세르와 페세의 호명 이론이 ‘주체없는 결정론’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구체적 발화상황에서 한 개인에 대해 다양한 호명들이 경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이다. 바흐친 학파(The Bakhtine Circle)의 언어관에 따르면 언술행위는 ‘랑그’라는 추상적 기호로 분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언술행위는 구체적 발화 상황에서의 대화이며, 그 사회적 맥락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바흐친 학파의 주장이다.<sup>18)</sup> 따라서 호명행위 역시 특정 맥락, 즉 ‘누군가’에 의해 ‘누구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따라 복수의 호명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가족 안에서는 ‘딸’로 호명되고 외국에서는 ‘한국인’으로 호명되며 성적 차별이 상존하는 곳에서는 ‘여성’이라고 구별되어 호명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역할이나 범주가 아닌 고유한 이름으로 호명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알튀세르가 제시하는 호명의 상황은 단순하다.

우리는 일상적인 호명과 같은 유형 속에서 그것을 표상할 수 있다: “헤이, 거기 당신!” 만일 우리가 상정한 이론적 장면이 길거리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한다면, 호명된 개인은 뒤돌아볼 것이다. 이 단순한 180도의 물리적 선회에 의해서 그는 주체가 된다. 왜냐하면 그는 호명이 ‘바로’ 그에게 행해졌으며, ‘호명된 자가 바로 그’(다른 사람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 이테올로기의 존재와 개인의 주체로서 호명은 하나의 동일한 사건이다.<sup>19)</sup>

구체적 상황에서 호명 행위는 알튀세르가 언급하는 것처럼 그저 ‘거기 당신’이라고 외쳐 부르는 일회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호명 행위는 비교적 긴 시간동안 지속되는 주체들 간 관계맺음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다르게 호명될 수 있다. 복수의 호명

18) 데이비드 포가치(김옥동 역), 「바흐친의 마르크스주의 문학 이론」, 『바흐친과 대화주의』, 나남, 1990 참조.

19) 알튀세르, 앞의 글, 119면.

들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범주/개별명칭’의 기준을 들 수 있다. 전자가 ‘조선인, 학생, 선생님’ 등 개인이 속한 역할과 범주들의 명칭이라면, 후자는 고유한 이름 석 자로 부르는 경우이다. 범주로 부르건 이름을 부르건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을 호명함을 알고 뒤돌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긍정/부정’의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은 ‘조센징’이라는 경멸적인 명칭으로 호명되기도 했으며, 순혈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혼혈은 ‘튀기’라는 부정적 호명을 부여받는다.

이처럼 개인은 구체적 발화상황의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호명들을 부여받는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이 호명들 모두에 뒤돌아볼 수 있지만 그 중 무엇이 ‘나’를 가리키는 지는 또 다른 선택의 문제가 된다. 즉, ‘정체성’이 타인의 호명 중 무엇이 나인지를 고민하고 그 긴장 속에서 자신을 규정해나가는 과정이라면, 여러 호명 중 개인은 부정적 호명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특정 범주로서 자신을 부르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승인된 호명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는 고유한 ‘나’를 찾고자 시도할 것이다. 물론 호명들이 이데올로기로부터 유래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타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선택은 사회의 맥락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호명들을 배제하고 승인하는 주체의 능동성이 드러날 수 있다.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두 작품 「남창서」와 「빛 속으로」는 혼혈조선인, 즉 부정적 호명을 부여받은 개인들이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물론 작품에서 등장인물들의 정체성 모색은 실패하거나 완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등장인물의 내적 갈등과 탈주 시도를 살펴봄으로써, 주체를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고 주체의 능동성을 부정하는 알튀세르 이론의 한계는 비판될 수 있을 것이다.

#### IV. 작중인물의 호명 양상 분석

##### 1. 이데올로기적 호명을 통한 주체 형성

최초의 호명을 부여받으면서 개인은 사회의 일원이 되고, 동시에 복수의 이데올로기들에 얽매이게 된다. 개인은 이름을 부여받으면서 가족적 질서에 귀속될 뿐 아니라 호적에 등재되고, 법제도 등 사회체제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이다.<sup>20)</sup> 최초의 호명을 통해 주체가 된 개인은 발화 맥락에서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세한가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호명된다. 예를 들어 가부장적인 가정 안에서 아들인 개인은 ‘장남’으로 지칭된다. 이때 호명은 호명된 당사자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특정 역할기대까지를 내포한다. 호명된 개인은 무의식적으로 이데올로기에 맞는 관습을 따르고, 그 관습을 따를 때 편안함과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호명기제는 개인을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데올로기에 걸맞지 않는 이들은 부정적 호명을 부여하거나 호명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배척한다. 순혈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사회에서 혼혈이 ‘튀기’라는 부정적 호명으로 구별되거나 뗏뗏이 호명조차 되지 못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즉, 호명은 ‘우리’와 타자를 구별하는 기제라는 점에서, 긍정적 호명을 부여 받은 자에게는 테두리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동시에 타자에게는 행동을 제약하거나 존재를 부정하는 폭력이 되는 것이다.

호명을 라캉의 상징적 동일화에 비유한다면, 호명은 아버지로 대변되는 상징적 질서에서 ‘나’가 형성되는 출발점일 것이다. ‘나’라고 말함으로써,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부터 추출된 고유이름을 받아들임으로써, 아이는 언어 체계에 의해 분열된 인간 주체가 된다.<sup>21)</sup> ‘나’라는 유일무이한 정체성을 구성할 때 주체는 아버지의 호명(초자아)에 스스로를 맞추는 동시에, 그럼에도

20) 김정숙, 앞의 책, 206면.

21) 김정숙, 앞의 책, 113면.

포획되지 않는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의식한다. 이때 타자로 밀려난 주체<sup>22)</sup>는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나’와 고유한 ‘나’ 간 갈등을 첨예하게 경험한다. 주체가 부정적 호명에 순응하려 해도 결국 ‘나’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을 억압해야하기 때문이다. 자연히 주체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된다.

부정적 호명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제 강점기의 조선인과 순혈 이데올로기 하의 혼혈은 같은 실존적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염상섭과 김사량이 일본에 체류하며 타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기에 혼혈문제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 2. 「남충서」

### 1) 부정적 호명이 일으키는 정체성의 혼란

1927년에 발표된 단편 「남충서」<sup>23)</sup>는 상속 문제와 민족 문제를 둘러싸고 혼혈인 남충서를 중심으로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다룬다. 남충서의 호명 과정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재구성한다면 다음과 같다. 친일파 조선인 남상철과 일본인 첩 미좌사 사이에서 태어난 주인공은 아버지로부터 ‘남충서(南忠緒)’라는 이름을 부여받는다. 남충서라는 이름은 일본식으로 부르면 ‘미나미 다다오’로, 남상철은 후에 일본인 이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까지 계산하여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충서는 본실의 아들이 아니지만 첫째 아들이라는 이유로 남(南) 가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되며, 민족이라는 국가 호명 장치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조선 사회의 일원이 된다.

충서는 가부장적 가족 이데올로기와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긍정적으로 호명되고 있다.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상속권이 만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

22) 부정적으로 호명되거나 호명조차 받지 못한 타자가 된 개인을 ‘주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알튀세르가 주지하듯이 모든 주체는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개인이라는 점에서 진정 자유로운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타자가 된 개인 역시 주체라 명명하고자 한다.

23) 염상섭, 「남충서」, 『염상섭전집 9』, 민음사, 1987.

가는 조선의 가족 제도에서 충서는 장남으로 호명되며 장남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반면, 어머니 미좌서와 효자는 타자의 입장이다. 미좌서는 첩이자 여자이고 효자는 첩의 소생이자 딸이므로 민적에 오르지도 상속을 받을 수도 없다. 미좌서가 남상철에게 민적에 올려줄 것과 효자의 장래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주체임을 인정받아 가정과 사회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이다.

가족, 젠더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민족(인종) 이데올로기<sup>24)</sup>는 구성원들의 호명을 좌우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충서는 본실 큰어머니 밑에서 조선 풍습을 학습하며 자라나지만, 후에 자신의 어머니가 일본인 미좌서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일복을 입고 어머니의 성을 따른 ‘시아 충서’란 이름으로 행세하게 되며, 일본식 발음인 ‘야노 다다오’로 호명되기도 한다. 알튀세르에 따르면 “학교는 모든 가족 국가장치와 학교 국가장치 사이에 꼭 끼인 채 가장 ‘상처받기’ 쉬운 여러 해 동안 새롭거나 낡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지배 이데올로기에 둘러싸인 ‘노하우’들 또는 단순히 순수상태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여 가르친다.”<sup>25)</sup> 1920년대 학교는 일제가 관리하는 국가장치였음을 고려할 때, 조선 가정에서 ‘남충서’로 자라나던 주인공이 일본식으로 호명되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남충서는 순혈 이데올로기에 부합하지 않는 혼혈이다. 조선 사회

24) 이 글에서는 민족 이데올로기와 인종 이데올로기를 하나로 엮어서 다룰 것이다.

김광억에 따르면 ‘민족주의’란 국가적 단위와 종족, 인종적 단위가 일치할 것을 주장하는 이념적 성향을 말한다. 한국과 일본은 단일민족의 신화에 기초한 민족 국가(nation-state)로서 민족은 곧 단일한 종족, 인종으로 구성된다고 상상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일제는 일본인이 가장 우수한 인종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상정함으로써 서구를 배워 자민족의 개량을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시아의 타 민족에게 일본민족의 인종적 우수성을 결합시킴으로써 아시아를 인종적으로 개량하는 위대한 과업을 달성한다는 상상으로 군국주의적 침략을 정당화하였다. 민족, 종족, 인종을 결합하여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기획은 해방 이후 한반도에서의 국가건설 과정에서도 일어났다.

김광억, 「종족(Ethnicity)의 현대적 발명과 실천」, 『종족과 민족 -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2006 참조.

25) 알튀세르, 앞의 글, 100면.

에서 조선인은 부모 모두가 조선인인 순혈로 ‘상상’되고 있었고, 타민족이나 혼혈은 부정적으로 호명되었던 것이다. 순혈 이데올로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충서는 남상철이 아닌 미좌서의 처지에 이입한다. 미좌서는 가정에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계급이 낮은 하인들에게 까지 ‘왜마마’로 놀림을 받는다. 충서 자신도 미좌서가 토로하는 “공중에 뜬 것 가튼 처지”(264)에 공감하며 조선 사회에서 자신이 느끼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충서 자신이 조선사람도 아니요 일본사람도 아닌 이상한 틈박우니에서 부대기며 자라났고 성인한 오늘날에도 역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괴이한 처지에 노획 있는 것이라던지 나이 먹어가고 장가를 가고 하여 완전한 한사람 목시 되어갈수록 어쩐지 공연히 맘이 불안초조하여 저만 가서 생활의 썩리를 튼튼히 막고 침착한 태도로 인생을 바라 보며 걸어나갈 것 갖지가 안흔 지금의 심리상태를 생각하면 그것을 곳 옮겨다가 자기 어머니<sup>26</sup>경우에 비하여 불수가 있는것을 그는 동정을 가지고 바라보지 안흘수 업섯다.<sup>26)</sup>

충서가 일본인 며느리를 들이리는 어머니 미좌서의 요구를 뿌리치고 결국 조선인 며느리인 정희를 택하는 것도 차별에서 벗어나 가정과 사회에서 떳떳이 한 사람 몫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충서의 태도에 미좌서는 “조선놈의 씨알머리는 모두 그모양이냐!”(274), “이런대서 조선놈 미테서 찍지는 안했슬 것이다.”(282)라고 폭언한다. 이 말에서 남상철과 충서는 처음으로 ‘조선놈’으로 지칭되고 있다. 미좌서와 충서는 순혈 이데올로기로부터 고통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민족(인종) 이데올로기 앞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는 갈라서는 것이다.

한편, 충서의 누이 효자는 일본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기에 다다미방에서 일본식 복장인 하오리를 입는 등 일본풍습에 젖어 있다. 효자는 처음부터 시아라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가정과 학교에서 일본식으로 호명된다. 효자를 보고 충서는 “말도 조선말은 여간 서투르지 안코 쏘 한사코 쓰지도 안흐며 조선옷은 몸에 걸치어 본 일이 한번이나 잇는지 모른다. 이름은 지

26) 염상섭, 앞의 책, 264면.

금와서는 남효자(미나미, 다야고)라고 행세를 한다”(279)며 ‘미묘한 감정’을 느낀다. 그러나 첫째 아들로서 권리를 누리는 충서와는 달리, 효자는 조선풍 습을 따른다고 해서 조선사회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오히려 일상생활과 언어, 교육을 통해 일본적 정체성을 획득하기에 골몰하는 효자의 노력은 순혈 이데올로기가 끊임없이 강제하는 인종적 폭력과 그에 따른 영락의 위협에 맞선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일 수 있다.<sup>27)</sup> 결국 미좌서와 효자는 조선가정에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일본행을 택하여 새로운 권리를 찾고자 한다.

## 2) 주체의 탈주 욕망, 그리고 좌절

고향을 찾아가려는 어머니의 결심을 듣고 충서는 “대체 자귀에게도 고향이라는 것이 있는가?”하는 의문을 품는다. 그는 “「아버지의 나라는 내 나라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낯선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자귀”(286)를 불쌍히 여기며 자신을 어디에 소속시킬 것인지 고민한다. 그는 여러 호명들을 검토하며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를 찾으려 한다. 그가 가담하고 있는 사회주의 운동 단체 P.P단의 동지가 “여보게 <야노>군 <미나미>군 남군!...온 자네 가튼 <썰조아지>는 성도 만흐니까 한참 부르코나면 숨이 차이그러!”(286)라고 조롱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자조한다.

“하지만 말하자면 나는 <야노>도 아니요 <미나미>도 아니요 남가도 아닐새미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적절히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는 것은 <미나미>라고 부르는 것이겠지! <야노>도 아니요 남가도 아닌 거기에 내 운명은 괴묘한 전개를 보여 주는 걸세.”<sup>28)</sup>

‘야노’라는 일본 이름을 따를 수도, 순혈 조선인으로서 몇몇이 ‘남가’를 따를 수도 없는 그의 실존적 조건을 가장 적절히 보여주는 이름은 ‘미나미’이다. 하지만 조선사회에서 ‘미나미’로 호명된다는 것은 곧 어디에도 소속되

27) 최현식, 「훈혈/훈종과 주체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23, 민족문화사학회, 2003, 145-146면.

28) 염상섭, 앞의 책, 286면.

지 못하는 충서의 처지를 보여줄 뿐이다. 따라서 충서는 ‘미나미’라는 이름 만으로는 조선사회에서 정체성을 수립할 수 없다. 그가 반복해서 ‘한 사람 몫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호명의 굴레에서 자유롭기 위해 충서가 스스로 택한 것은 ‘사상’이다. 충서는 사상활동을 택한 이유를 “조선인이라는 의식과 관념이나 민족에 대한 감격이라는 점으로서는 다른 순실한 조선 청년에 비하여 못맞는 점이 있을찌 몰라도 자기 자신의 일관한 신념에서 출발한 것”(287)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P.P.단 동지들은 충서가 ‘부르주아 친일파의 자식’, ‘일녀의 소생’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동지의 모반자로 경계하기도 한다. 충서는 출신을 떠나 사상에 대한 ‘신념’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려 하였지만, 순혈 조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정체성을 가질 자유를 제약받고 신념의 진실성마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P.P.단의 동지들은 계급과 혈통을 잣대로 충서의 정체성을 판단하여 ‘일본인 혼혈’이면서 ‘사상가’라는, 한 사람에 두 가지 정체성이 공존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결국 충서는 P.P.단에서도 자유로운 주체가 되지 못하고 결국 기존의 호명을 확인할 뿐이다.

‘이데올로기에 종속된 개인’이라는 실존 조건은 충서에게는 언제나 의식해야 할 굴레가 된다. 긍정적 호명을 부여받은 주체들은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유로운 주체’로 스스로를 표상할 수 있다. 그러나 테두리의 경계에 놓이거나 타자화된 남충서, 미좌서, 효지는 끊임없이 소외를 느낄 수밖에 없다. 부정적 호명에서 탈주하기 위한 충서의 욕망은 미국유학을 꿈꾸는 것으로 표출된다. 미좌서와 효자에게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일본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민족에 오른 데다 조선풍습에 젖은 충서가 갈 곳은 제3국인 미국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유학은 남상철의 재력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결정이고 남충서가 미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상적 대안에 불과하다.

“... 파괴하는 것은 물론 옳은 일이다. 그러나 파괴한다는 것은 사람이 전통업시 산다는 것은 아니다. 필육이 조치 못하다는 것은 사람의 생활에 섬유(纖維)가 불필

요하다는 의미는 아니 되는 것이다. 다만 압된 것은 전통이 편견을 낮고 편견이 감정을 부리고 감정은 이욕이란 뿌리 우에서 휘날리는 것이다. … 하지만 허는수 없는 일이다. 당자끼리는 어찌서 그랬던지 자식부터는 벌써 다른 것을 어찌느냐는 어머니 말이 솔직한 말이다. 못칠 자리를 차자가려는 어머니가 달관이다!”<sup>29)</sup>

위 인용구에서 충서는 ‘전통’이 이데올로기가 낡은 편견과 결부되어 있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감정과 이해관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전통 역시 이데올로기적 장치로부터 형성된 측면이 있다는 인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충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할 영토를 찾지 못하고 피 속에 요약되었다고 하는 ‘민족(인종)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게 된다.

### 3. 「빛 속으로」

#### 1) 부정적 호명이 아끼하는 적대감과 동질감

염상섭이 1920년대에 일본 사회에서 느낀 타자의식을 조선사회로 무대를 옮겨 쓴 것이 「남충서」라면, 김사량의 「빛 속으로」는 무대를 일본 사회로 옮겨 민족과 결부된 국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전면화한다. 「남충서」에서 충서의 호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은 아버지 남상철로 형상화되어 있다. 초점을 친일과 조선 가정으로 맞추었을 때 조선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일제의 권력은 드러나지 않는다. 조선사회의 실권을 장악한 일본인들은 등장하지 않으며, 유일한 일본인인 미좌서는 여자이자 첩으로서 하인들에게까지 “왜마마”로 조롱받는 약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상철은 가부장적 질서에 기대어 가정 내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즉, 「남충서」에서 차별의 공모자들은 일본인이 아닌 아버지 남상철이나 P.P.단 동지이며, 친일과 남상철이 의탁하던 제국의 권력은 소설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다.

「남충서」에서 제기되었던 혼혈의 문제는 「빛 속으로」에 이르러 차별받는 구성원 전체의 차원으로 확장된다. 구성원들의 고통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29) 염상섭, 앞의 책, 289면.

구체화되며, 혼란의 근원은 ‘조선인은 열등하다’고 하는 내선일체 논리에 있다. 조선인은 열등하고 일본인이 우월하다고 하는 낙인은 두 가지 왜곡을 불러일으킨다. 하나는 대상이 된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왜곡하는 문제와, 그런 잘못된 특징이 대상이 된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유일하게 적절한 특성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이다.<sup>30)</sup> 이에 김사량은 동경 유학생인 ‘내’가 부정적 호명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부정적 범주화를 거부하고 구성원들 간 새로운 호명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빛 속으로」는 동경제대에 다니는 유학생 ‘내’가 대학소속 빈민구제단체인 S협회에서 혼혈아 하루오를 만나면서 겪는 갈등과 해소과정을 다루고 있다. 주된 갈등은 ‘나’의 호명에 관한 것이다. S협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는 ‘미나미 선생’으로 호명된다. ‘남(南)’은 「남충서」에서 충서가 미나미 다다오로 불리는 것처럼 발음만 달리하면 일본이름처럼 보일 수 있는 성씨이다. ‘나’는 일본식 호명을 승인하는 것이 조선인임을 숨기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의식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변명한다.

처음에는 그런 호명 방식이 매우 마음에 걸렸지만 나중에는 친जन난만한 아이들과 함께 놀기 위해서 그편이 오히려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때문에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고 또한 비굴한 것도 아니라고 자신에게 몇 번이고 타일렀다. 또한, 말할 필요 없이 아동부 안에 조선 아이라도 있었다면 나는 일부러라도 자신을 ‘남’으로 불러달라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변명도 했다. 조선 성씨로 불리게 되면 조선 아이들에게도 또한 내지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임이 틀림없다고.<sup>31)</sup>

‘나’의 위선은 차별받을 가능성이 높은 하층 노동자임에도 조선식 이름을 고수하는 이군을 만나면서 폭로된다. 미나미 선생으로 행세하는 ‘나’에게 이군은 조선어로 말을 걸며 ‘내’가 조선인임을 뚝뚝 드러낼 것을 종용한다. 이군과의 대치장면에서 드러나는 것은 ‘성씨를 호칭하는 문제’가 차별을 드러내는 기제이며, 조선인이 “비뚤어진 마음가짐”을 가지고 “비굴하게 행동”

30) 아마르티아 센(이상환 역), 『정체성과 폭력』, 바이북스, 2009, 40면.

31) 김사량, 앞의 책, 15면.

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사실이다. ‘나’는 “이 땅에서 조선인이라는 것을 의식할 때마다 언제나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렇다, 확실히 나는 진흥당과도 같은 연극에 지쳐 있다”(32)고 술회한다. 즉, 조선인은 이러한 부정적 호명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조선인임을 감추고 부정하는 ‘위선자’가 되어야만 일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조선인임이 폭로되자 혼혈아 아마다 하루오는 “이거 봐라, 선생님은 조센진이야”(17)라고 소리친다. ‘조센진’이라는 조선인을 조롱하는 부정적 호명은 역설적이게도 일본인-조선인 혼혈인 하루오의 입을 통해 처음 등장한다. 자신의 조선 정체성에 대한 하루오의 태도는 이중적이다. 그는 “(조선인) 어머니의 것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29)를 보이는 동시에 무의식적인 끌림을 느낀다. 이는 하루오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상응한다. 하루오는 ‘나’를 앞장서서 ‘조센진’이라고 조롱하는 동시에, ‘선생님’이라고 호명하며 따른다. ‘나’ 역시 하루오에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을 느끼는 동시에 “내심 아마다를 꺼리고 어려워하고”(22) 있다. 즉, 조선인이라는 콤플렉스를 공유함으로써 두 인물은 서로를 적대하는 동시에 동질감을 느낀다.

## 2) 혼혈 주체에게 주어진 세 갈래 길

‘나’와 하루오의 관계는 하루오의 어머니 정순이 병원에 실려 오면서 전환된다. 일본인 아버지 한베가 휘두른 폭력으로 참혹한 모습이 된 정순을 하루오는 선뜻 ‘어머니’라 호명하지 못한다. 하루오는 “조센진 따위 내 엄마가 아니야. 말도 안 돼 안 돼.”라고 외치며, 어머니를 ‘조센진’으로 호명하며, 자신의 조선인 정체성을 감추려 한다. 하루오가 일본 사회에서 ‘일본인’이라는 긍정적인 호명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 것에 대한 조건없는 헌신”과 “어머니 것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29)를 택해야 한다. 즉 폐쇄가 말한 ‘착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오는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일본인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해야 한다.

하루오가 따를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이다. 우선 아버지 한베의 방식을 따라 일본 사회의 ‘선한 주체’가 되는 길이 있다. 하지만 하층민인데다 혼혈인 하루오는 조선인임을 감춘다고 해서 내지인과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없

다. 이른바 ‘자유로운 주체’의 길은 일정 계급 이상의 순혈 일본인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다. 일본인, 조선인 혼혈임이 암시되는 아버지 한베가 폭력의 길을 걷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나’는 유치장에서 한베를 처음 만난다. 한베라는 이름은 그가 가담한 폭력단체의 무리들이 호명하는 방식으로 ‘모자란 사람’이라는 뜻이다. 부정적 이름으로 살아가며 한베가 학습한 것은 강자에게는 굴복하고 약자에게는 폭력을 휘두르는 비겁한 태도이다. 한베는 아마다라는 일본식 성으로 호명되며 내지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순혈 이데올로기로는 ‘모자란 사람’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베는 ‘착한 주체’를 지향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조선인 아내 정순과 아들 하루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려 한다.

또 다른 선택지로 ‘악한 주체’가 되어 사회의 부정적 호명에 저항하는 이군의 길이 있다. 일본 사회에서 이군은 조선식 호명을 고수하고 그의 어머니는 조선옷을 입는 등, 그들 가족은 조선인임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 사회에서 일본 풍습을 고수하는 미좌서가 조롱의 대상이 되었듯이 일본 사회에서 조선 풍습을 따르는 이군 가족 역시 차별을 받는다. 차별에 대하여 일상에서 이군이 조선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무장하고 끊임 없이 분개해야 한다. 즉, 일본 사회와 끊임없이 대치해야만 이군은 조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군의 호전성은 동족 여인인 정순에 대해서는 그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고 보호하고자 하는 동정심으로, 조선인임을 감추는 ‘나’에 대해서는 “소년다운 분개”(15)로 표출된다. 한편, 혼혈 내지인 한베와 하루오에게 이군은 적대감을 보인다. 이군은 내지인 행세를 하는 혼혈 한베를 부정적 언명인 ‘튀기’로 호명한다. 문제는 이같은 적대감이 아들 하루오에게 옮겨간다는 것이다. 이군은 하루오를 ‘한베의 자식’으로 혹은 이 녀석 혹은 저놈이라고 지칭할 뿐 이름으로 호명하지 않는다. 이군이 운전수가 되어 자신감을 얻었을 때도 그는 하루오의 모습을 보고 거북한 듯이 눈을 피할 뿐 마음을 열지 못한다. 이러한 이군의 태도는 내지인에 대해 조선인의 테두리를 만들고자 하는 반동일시 기획이 또 다른 편견과 폭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하루오를 한 사람으로 호명하지 못하는 이군의 행동에서 또 다른 순혈 이데올로기의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베와 이 군의 길이 상반되지만 차별과 폭력으로 전화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면, 마지막 선택지는 ‘나’와 하루오가 동등하게 서로를 호명하는 길이다. 그 계기는 하루오가 폭력의 희생자가 된 정순을 목도하면서부터이다. 정순은 하층 조선인 여자로 민족(인종)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모두로부터 타자이다. 병원에 실려 온 정순이 대는 이름은 남편인 한베의 성에 정순의 일본식 발음이 합쳐진 ‘아마다 테준’이다. 하지만 서툰 일본어나 ‘정순’이라는 이름 때문에 정순은 자신의 조선인임을 숨기지 못한다.<sup>32)</sup> ‘나’는 정순이 입원한 병실로 찾아가 자신을 ‘남’이라고 소개한다. 반면, 정순은 남편 한베를 옹호하고 하루오는 내지인이므로 “선생님께서 방해하는 것은 나쁘다”(42)고 말한다.

정순은 한 사회에서 호명을 박탈당하는 것이 곧 주체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순은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성하는 지식인 ‘나’와 달리, 조선 정체성을 완전히 숨기지도 일본인임을 가장할 수도 없다. 선한 주체가 될 수도 악한 주체가 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순이 일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지인 한베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한베의 폭력은 그가 남편이고, 정순은 조선 여자라는 사실로 정당화된다. 일본 사회에서 이름이 아닌 ‘조선 여자’라는 부정적 호명으로 호명될 뿐인 정순은 폭력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하루오는 정순을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녀를 ‘조센징’으로 호명한다. 이 경우 하루오는 정순을 차별하는 한베의 태도를 학습한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를 통한 하루오의 ‘선한 주체’, 즉 내지인되기는 실패한다. 하루오는 어머니의 병실에 가는 대신 비오는 날 ‘나’를 찾아와 울음을 터뜨린다. ‘나’는 하루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하루오는] 완전히 내게 마음을 허락한 것이리라. 나는 그의 마음속 세계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것이 잠재해 있음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모친에 대한 본능적인 애정이 어떻게 이 소년에게만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는 다만 비뚤어져 있

32) 김사량은 강조점이 찍힌 가타카나 표기나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을 통해 정순이 사용하는 일본어가 표준어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번역본 주석 참조.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근처 사람들로부터 고통받고 배척당한 한 명의 동족 여인을 상상했다. 그리고 내지인의 피와 조선인의 피를 받은 한 소년 안에 조화되지 않은 이원적인 것의 분열이 불러온 비극을 생각했다. … 하지만 ‘어머니의 것’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 속에도 역시 어머니에 대한 따뜻한 숨결은 생동하고 있던 것이라.<sup>33)</sup>

이 대목에서 ‘나’와 하루오, 정순은 조선인임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겪는 내적 갈등으로 묶이고 있다. 하지만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호명은 호명의 당사자에게 차별의 시선을 학습하게 하므로, 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타자들은 서로를 적대할 수 있다. 하루오가 ‘나’를 앞장서서 조롱한 일이나 ‘남’이라고 밝힌 ‘나’를 경계하는 정순의 태도, “내심 아파다를 꺼리고 어려워하”(22)는 하루오를 대하는 ‘나’의 태도도 이 때문이다.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끼는 순간, 스스로의 열등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자가 고통받고 있고 자신도 그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루오의 태도는 변한다.

하루오의 변화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는 ‘담배’이다. 하루오는 “엄마는 피가 나면… 늘 살담배를 상처에 붙였어요.”(49)라고 말하며, 병든 어머니를 위해 담배를 훔쳤다고 밝힌다. 순간 ‘나’의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정순이 한베에게 맞은 후 살담배를 개서 상처에 붙이는 모습이다. 정순의 모습은 동일한 방식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고향 농민들의 모습으로 확장된다. 즉, 담배를 매개로, 호명되지 못하지만 개인에게 끝까지 남아 있는 정체성이 드러난 것이다. 담배를 통해 ‘나’는 하루오와 정순, 그리고 고향 농민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하루오가 정순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개인의 차원에서 호명되지 않는 정체성을 긍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정체성은 개인의 자기규정이기도 하지만 사회와 타인의 인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는 사회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하는 등장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아간다. 하루오와 ‘나’ 사이의 긴장이 해소된 후, 그들은 우에노 공원과 백화점으로 나들이를 간다. 우에노 공원과 백화점은 많은 일본인들이 찾은 일상 공간이다. ‘나’는 어느 일본인

33) 김사랑, 앞의 책, 29면.

아이처럼 인파에 섞인 하루오를 보고 “지금 소년 하루오가 모든 사람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정말 이상할 정도로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다.”고 말한다. 운전수로 일하게 된 이 군이 나타나자 ‘나’의 기쁨은 고조된다. 직업을 가짐으로서 사회의 일원이 된 이 군을 보고 ‘나’는 하루오에게 “이 군은 훌륭한 운전사가 되었구나.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될 생각이니?” 하고 묻는다. 무용수가 되겠다는 하루오의 대답에 ‘나’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상처입고 비뚤어진 한 소년이 무대 위에서 다리를 뺀고 팔을 펴서 쏟아지는 빨강과 파란색의 다양한 빛을 쫓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계속 춤을 추는 이미지”(51-52)를 떠올린다. 즉, 일본인 인파에 섞여 있는 하루오, 운전수가 된 이 군, 무용수가 된 하루오는 정당한 호명을 얻고 사회에서 주체임을 인정받는 모습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이 모습들은 현실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바라는 꿈일 뿐이다. 사회의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들이 주체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새 옷을 입고 카레라이스를 먹는 여느 일본 아이와 같은 하루오의 모습은 ‘나’를 동행한 하루 동안의 나들이에만 지속될 뿐이며, 그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난과 폭력은 계속될 것이다. 하루오가 무용수의 꿈을 이룬다고 해도 차별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당대 조선과 일본에서 알려진 조선 예술가들이 체제협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사실은 예술이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난 도피처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V. 대등한 호명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정체성

그렇다면 차별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동일시와 반동일시의 거울상에서 벗어나 ‘탈동일시’를 꿈꾸는 개인은 새로운 영토를 발견할 수 있을까? ‘나’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협회 근처 아파트에라도 집을 옮겨 하루오와 들만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그들의 꿈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

질 뿐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암시한다. 오히려 가능성을 보이는 것은 다음 장면이다. 하루오는 “선생님 이름을 알고 있”(53)다고 하며, ‘나’를 ‘남 선생님’으로 호명한다. 이로써 ‘나’는 조센징이라는 부정적 호명이나 조선인임을 드러낼 것을 종용하는 반동일시의 요청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남 선생님’으로 승인된다. ‘나’와 하루오가 형성하는 관계에서 조선식 이름은 더 이상 열등감이나 피해의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나’와 하루오는 조센징이라는 범주화를 넘어, 열등감을 벗고 서로의 이름으로 호명하게 된다.

「빛 속으로」의 결말은 정체성의 확립이 아닌, 출발이자 모색이다. 따라서 하루오의 호명은 ‘나’와 하루오가 완전한 조선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보다, 정체성을 찾는 출발선에 서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내’가 상상하는 하루오의 미래는 조선식 이름을 가지고 조선풍습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것을 회복함으로써 하루오의 정체성은 ‘선택권’을 되찾은 것일 뿐, 혼혈인 그에게 조선이나 일본이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이 될 것이다. 단지 ‘내’가 바라는 것은 “터키 아이들이 일본 아이들과 스모를 하면서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32)듯이 혼혈아 하루오 역시 동등한 입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빛의 공간이다.

하루오와 ‘내’가 동등한 주체로 서로를 호명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당하게 호명되지 못하는 고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부정적으로 호명되는 조선인과 긍정적으로 호명되는 일본인 어디에도 동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열된 주체인 개인은 동질적인 경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서로를 호명할 수 있다. 여기서 형성된 정체성은 일본인의 것도 아니고, 순혈 조선인의 것도 아닐 것이다. 마치 지금의 재일 조선인의 정체성과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다르듯이,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된 정체성은 어느 쪽으로도 환원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정체성을 모색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이다. 결국 개인은 부정적 호명으로 타자화되지 않고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에서 고유한 이름으로 호명될 때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재용, 광형덕 편, 「빛 속에」, 『김사랑 작품과 연구』, 역락, 2008.
- 염상섭, 「남충서」, 『염상섭전집 9』, 민음사, 1987.
- \_\_\_\_\_, 「식민지인의 윤리적 분열과 내러티브」, 『일본문화연구』 35, 동아시아일본학회, 2010.
- 김광억 외, 『종족과 민족: 그 단일과 보편의 신화를 넘어서』, 아카넷, 2006.
- 김석희, 「김사랑 평가사」, 『일어일문학연구』 57, 한국어일문학학회, 2006.
- 김재용, 「김사랑-망명 혹은 우회적 글쓰기의 돌파구」, 『협력과 저항』, 소명, 2004.
- 김성숙, 『한국현대소설과 주체의 호명』, 도서출판 역락, 2006.
- 김태환, 『푸른 장미를 찾아서』, 문학과지성사, 2001.
- 데이비드 포가치(김옥동 역), 「바흐친의 마르크스주의 문학 이론」, 『바흐친과 대화주의』, 나남, 1990.
- 루이 알튀세르(김동수 역),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아미앵에 서의 주장』, 숲, 1993.
- 시모어 채트먼(한용환 역),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 아마르티아 센(이상환 역), 『정체성과 폭력』, 바이북스, 2009.
- 안우식(심원섭 역), 『김사랑평전』, 문학과지성사, 2000.
- 윤대석, 「1940년대 ‘국민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주미, 「김사랑 소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양상」, 『현대소설연구』 제1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 임종국,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13.
- 최현식, 「혼혈/혼종과 주체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23, 민족문화사학회, 2003.
- 페터 지마(허창운, 김태환 역), 『이데올로기와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6.
- 홍일표,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 - ‘창씨개명’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